

古典解題 (2)

覺 岸 註 四 山 碑 銘

任 昌 淳

(泰東古典研究所長)

1. 四山碑銘과 崔致遠의 文學

四山碑銘은 寫本 1冊으로 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印本에 접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이책은 절간에서 讀本用으로 傳寫해 온 듯 하다. 내용은 新羅의 崔致遠의 손으로 된 4개처의 사찰에 세운 碑銘이다. 이를 具體적으로 詳記하면 아래와 같다.

1.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諡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2. 有唐新羅國故曠陽山鳳岩寺教諡知證大師寂照之塔碑銘(并序)

3. 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并序)

4. 有唐新羅故智異山雙溪寺教諡眞鑑禪師碑銘(并序)

上記 四種の 碑 가운데 初月山崇福寺는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고 나머지 三種은 처음 세웠던 자리에 지금까지 下記와 같이 깨끗이 保存되어온다.

1. 忠南 保寧郡 嶺山面 聖住里 聖住寺刹

2. 慶北 聞慶郡 加恩面 院北里 鳳岩寺

4. 慶南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雙谿寺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면 眞鑑禪師碑는 作者인 崔致遠 自身이 碑文의 글씨와 頭篆까지를 썼고, 知證國師碑는 당시에 83세의 고령인 芬皇寺의 중 慧江이라는 이가 직접 썼을 뿐 아니라 돌에 새기기까지 하였고 朗慧和尚碑는 崔致遠의 從弟인 崔仁濟가 썼다. 그런데 碑面에서 보면 朗慧碑는 新羅 眞聖王 때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이 碑는 高麗 定宗 顯宗 以後에 세운 듯 하다. 그것은 이 碑에서 高麗 第二代之 임금인 惠宗의 이름인 「武」를 缺劃하여 「紹」로 쓴 것이 數個處나 나오기 때문이다. 이 碑들의 내용은 崇福寺碑를 제외한 三種은 모두 新羅時代의 高僧의 一代記를 적은 塔碑며 崇福寺碑는 寺刹 崇福寺를 창건한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崇福寺碑는 일찍 없어졌으므로 그 글씨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年前에 寺址에서 碑의 破片이 발견되어 그것이 眞鑑禪師碑와 함께 崔致遠의 自筆임을 알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碑文의 내용을 本稿에서는 一一히 소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생략하려 한다.

著者인 崔致遠에 대하여도 물론 일반이 잘 알고 있으

므로 再論述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그의 문학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려 한다. 崔致遠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漢文學의 鼻祖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崔氏 이전에도 약간의 金石文이 現存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 少時에 唐에 留學하여 그 나라의 科擧에 합격하고 그곳에서 벼슬을 지냈고 당시에 유명한 文學者들과 交遊가 있어 그들의 贈答한 作品이 傳하며 또 그의 文集이 중국사람이 편찬한 唐書藝文志에까지 올라있는 등 력력한 관록이 있을 뿐 아니라 現存한 桂苑筆耕集이 新羅時代의 最古唯一의 文集이며 筆耕集에 실린 것 이외에도 地方寺刹文獻가운데는 崔氏의 文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많이 보인다. 이런 點으로 보아 漢文에 대하여 서투르던 時代에 이렇게 中外에 이름을 떨친 점으로도 그의 文學史의 位置는 뚜렷하다. 그러나 그의 作品 自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多少 論議할 점이 없지 않다. 그의 文章은 거의 全體가 四六文으로 되어 있다. 四六文의 駢體文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이것은 中國 南北朝時代에 발생된 체제인데, 文章이 對偶句만으로 構成되기 때문에 故事成語와 經史子集에 나오는 語句를 단편적으로 없어서 句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內外句의 字數가 꼭 같이 組立되어 對偶의 妙와 韻律의 美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外形的인 形式美에 불과하고 文章이 가지는 내용은 차츰 纖弱穿鑿함에 흐르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실증을 느낀 結果 唐代의 大家 韓愈는 다시 文藝復古論을 강력히 주장하여 四六文을 排除하고 古文을 다시 살리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唐代에서도 初期에는 물론 四六文이 支配的이었고 韓愈 以後에 古文을 좋아하는 文人이 많이 일어났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四六文이 盛行되어 唐末에 까지 이르렀다. 崔致遠이 唐에 들어간 것은 唐末이었으나 그가 科擧出身이었던 관계에서인지 그의 現在 전하고 있는 그의 作品은 모두가 四六文뿐이요, 또한 四六文으로서도 格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造辭에 격적은 말을 늘어놓고 結句에도 표현이 不自然스런 것이 많았으며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는 정작 空疎한 感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文章自體로서의 가치는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면서 그 語句의 解釋에는 故事成語에 대한 豊富한 지식이 없이는 不可能

하였다. 그러나 그가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鼻祖였기 때문에 그 後繼者들이 모두 四六文만을 사용하여 新羅는 물론 高麗一代에도 文章은 四六文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니 東文選에 실린 것과 역대 金石에 나타나는 것을 볼지라도 이를 알 수 있다.

2. 覺岸과 碑銘註

前述한 바와 같이 四山碑銘은 佛敎에 관한 最古의 文字며 또 그것이 유명한 崔氏의 손에 된 것이기 때문에 佛家에서는 오래전부터 古文의 讀本으로 읽혀 온 듯하다. 그 중에도 皇福寺碑는 碑가 없어진지가 벌써 오래인데도 이책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傳해진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文章이 難解한 것이므로 절간에서 이를 口授하기에 힘이 들었을 것이요 배우는 사람도 그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곤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여러 僧侶들의 손에 의하여 註解가 詩圖圓 듯 하다. 筆者가 본 것으로도 海南大興寺에 所藏된 「四山碑銘」一冊에도 주석이 있었으나 그것은 覺岸의 註와는 내용이 달랐고 또 비교적 疎略하였다. 뒤에 在來의 註說을 종합. 참고 하여 集成한 것이 이 覺岸의 註解本인 듯 하다.

覺岸(1820—1896)은 李朝末期인 哲宗—高宗時代의 僧侶로 本名은 崔幻如, 호는 梵海다. 그는 全南 莞島出身으로 大興寺의 高僧이었던 草衣大師의 門人이다. 그의 著書로는 그의 詩文集인 梵海遺稿 以外에 東師列傳, 警訓記, 四十二章經記 등 佛學에 관한 著作이 있고 그 밖에 通鑑私記, 東萊博議私記, 東詩選, 名數集등이 있는바 이들은 모두 俗家에서 一般敎養에 소요되는 編述이다. 그것으로 보아 그는 佛學敎義에만 길을 뿐 아니라 또한 俗家主의 經史子集에도 豊富한 知識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그가 難解의 四山碑銘註를 整理한 것은 매우 하염축한 일이다.

本書 寫本一冊은 每面에 10行 行18字씩이며 原文은 原碑에 나타나는대로 쓰고 註解는 原文에 연달아 두줄로 작게 써넣었다. 卷首標題目 「四山碑銘」아래에 「頭輪沙門 覺岸註」라고 記入되었다. 頭輪은 現在의 海南大興寺의 옛 이름인 大菴寺의 所在地인 頭輪山을 가리킨 것이니 覺岸도 大興寺의 僧侶였으므로 이렇게 쓴 것이다.

註의 내용은 詳細를 極하였다 할 수 있다. 引用書目이 따로 列記되지는 않았으나 中國書籍만해도 50여種에 달하는데 이중에는 風俗通, 西京雜記, 論衡, 弘明集, 拾遺記등 당시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얻어보기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것으로는 주로 三國史記를 引用했는데 「孤雲傳」「羅史」「東史」등의 名稱을 難用하였다.

이밖의 本書의 옛 註解에 대하여는 「舊解云」으로

用하기도 하고 「羊師」의 說도 引用했는데 羊師는 곧 鞭羊을 가리키는듯하다. 또 어떤 곳에는 「茶山」의 說도 引用했는데 이것은 茶山 丁若鏞을 가리키는 것으로 茶山의 著書를 引用한 것이 아니요 茶山이 말한 것을 직접 들은 듯 하다. 茶山이 康津謫居中에 草衣와의 交遊가 잦았으니 覺岸이 옆에서 들은 바를 적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寺蹟記로 「竹迷記」와 「茶山大菴志」 등이 引用되었다.

또 해석하는 중에 漢文만으로는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리 말로 새겨 넣기도 하였다. 그 二三의 예를 들어 본다.

朗慧碑에 「口將手議役」아래에

「釋曰입이 장차 손과 역을 의논하야」라하였고 또 同文下에 「將自適其適」에 대하여는

「釋曰 장차 제가 그마다한달로 나와가더니」

라 하였고 또 知證碑中에 「霍副往綿誰入棘」條에 대하여는 覺岸은 해석하기를 「霍, 圓繞之貌, 副, 布也, 往綿, 陳綿也, 謂眞綿圍布於衣而服之, 棘刺何可穿入於衣內也」라 하고 그 아래에 「岸如上釋」 곧 「자기의 해석은 이러하다」해놓고 그 다음에 「舊注曰, 霍副古之貧人名, 又, 作文苟且之意, 又大師脫塵之意」라는 말들을 모두 引用하고 또 鞭羊의 解釋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였다.

「又羊老釋: 霍副何 往綿은 무근 소음을, 副는 폐역」 이렇게 引用하고 「羊解似可」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句節은 如前히 難解의 句로 남아있었으나 註說을 종합하면 「몸을 목은 속으로 두텁게 싸놓으면 가시에 찔린 염려가 없다」는 뜻이 된다.

또 이 책에는 전부에 「토」를 달았는데 「토」에 대해서도 自來로 상당한 異說이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朗慧碑 가운데에 朗慧가 唐에 遊學하기 위하여 航海를 무사히 끝내고 中國 땅에 들어가서 海若 곧 水神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대목에 「土揖海若曰, 珍重鯨波好戰風魔」라는 句節이 있는데 그 밑에 붙인 註釋은 아래와 같다.

「本註에 珍重하야 好戰風魔하라하고 如是懸吐하고 釋曰 海神이 在鯨波之中하야 好戰風魔로 相戰也라하니 愚意는 珍重하라 好戰風魔로다 如是懸吐하면 則師於鯨波之中에 賴海若之助하야 與風波로 戰勝也라 故謝海若曰 珍重하라 珍重은 謝恩之言이요 好戰은 勝戰之言也라 豈可使海若으로 勸戰而先謝也리오」

이 해석은 물론 覺岸의 說이 정확하다. 곧 水神에게 인사하며 「고맙소, 거센 풍파와 잘 싸워주었소」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自明한 일이다.

以上은 一例를 들어본것에 불과하나 原文自體가 극히 難解의 文章이므로 역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學人들

의 손에 의하여 가지밭에 길을 뚫는 듯한 작업으로 계승해오다 마침 覺岸에 의하여 이것이 大成된데 대하여 先人들의 노고, 大師覺岸의 섬부한 지식과 명확한 해석으로 이를 대성시킨데 대하여 뒤의 讀者들은 감사로 드러야 할 것이다.

3. 本書의 價値

本書는 단순한 佛家の 碑銘만으로의 意義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新羅時代에서 이루어진 遺物인만큼 그대로 풍부한 史料의 價値를 지니고 있다. 특히 朗慧 碑에서는 原著者自身の 손으로 新羅時代의 制度등을 双行小注를 붙여 놓았다 例를 들면 朗慧의 家系를 서술하는 중에서 「大父周川, 品眞骨, 父範淸, 隆眞骨一等曰得難」이란 아래에 「新羅有五品爵, 曰聖骨, 曰眞骨, 曰難得, 曰王族, 曰金骨」과 같은 것은 三國史記나 唐書에서도 볼 수 없는 珍貴한 資料다. 또한 知證碑가운데에 眞興王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는 것을 서술하면서 「祝頭居寐錦之尊」이라 했는데 이것은 「머리를 깎고도 임금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다. 寐錦은 신라시대에 「王」의 칭호로 썼던 것이니 高句麗廣開土王碑文 가운데도 「新羅寐錦未有身來朝」라는 어구가 보인다, 이것은 金石과 金石이 서로 注釋을 내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資料를 볼수가 없었기 때문에 覺岸은 「居寐錦之尊」에 대하여 「變錦爲縞衣也」라는 억지의 풀이를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一般史料로도 중하지만 佛敎史料로서의 四碑의 가치는 실로 중대하며 또한 文學史上의 비중으로도 그 最古의 資料라는 의미에서 실로 至大하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難解했던 이글 전체에 대하여 세밀한 주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이 方面을 연구하는 학도를 위하여 큰 길잡이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正祖時代의 學僞으로 유명한 蓮潭 千有一의 蓮潭集 가운데에 「四山碑銘序」가 실려있음을 소개하려 한다. 이 글에는 碑銘의 註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고 益上人이란 사람이 이 책을 새로 베껴가지고 序文을 써달라는 請에 의하여 쓴 것이라 하면서 주로 崔致遠의 學問과 文章을 論하고 退溪 李滉이 崔致遠을 「全身倭佛之人」으로 評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 崔氏의 才能과 또 그가 살아있던 社會的 制約등을 들어 崔氏를 退溪의 비난에서 변호하였고 또 그의 文章에 대하여도 어떤 사람은 「駢體만을 崇尚하여 品格이 卑弱하여 韓愈나 柳宗元처럼 雄渾한 맛이 없다」는 評에 대하여 그는 「韓·柳의 文章이 先生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先生의 능한 점에 대하는 韓·柳는 또한 따르지 못할 것이 아니냐」하며 崔氏를 옹호하였다. 蓮潭은 經史를 박람하여 文章에 능하며 著作으로 林下錄 以外에 講經에 관한 10여種의 著書를 남겼다.

여기에 소개한 「四山碑銘覺岸註」는 筆者 所藏이며 總寫本 71張으로 되어있음을 밝혀 둔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 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 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의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포드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